

東大新聞

발행주최	인간개발연구원	민중혁신당	법률정책연구소	친박당
편집장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발행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1 (2260-3492)			
전화	100-715			
팩스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411-4132)			

제 1085호 (주간) 1994. 11. 13 (1995. 10. 13 제 3 중구관동(7)답안기)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1년(단기4324년) 10월30일 (수요일) 【 1 】

기계공학과 신설...교수 확보등 과제 내년 입학 정원 90명 증원

92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지난해보다 90명 증원된 3천9백20명으로 확정, 발표됐다. 교수처는 92학년도 입학정원 부분에서 신설된 기계공학과 60명, 전기전자계열 30명 등 총 90명이 증원된 것과 함께 전자계산학과 컴퓨터공학과로 학과명칭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공과대 전기전자계열의 증원된 30명은 전기공학과 20명, 전기공학과 10명으로 각각 배정되었다. 이번 신설된 기계공학과는 학교당국이 공과대의 요청에 따라 4년전부터 신설 추진계획에 이루어져 고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기계공학과 신설로 인해 공과대의 학문적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계공학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위축된 측면을 탈피해 일신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증과·증원과 관련, 공과대학장 신효선(식품공학)교수는 "전기전자계열의 증원된 기계공학과 신설은 공과대의 오랜 숙원사업이 달성된 획기적인 일이나 아직도 당대가 해결해야 할 실용공간의 부족, 실험·실습기자재의 열악 등 산재한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풀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설된 기계공학과와 강의실 마련을 비롯한 신규교수 확보는 공개 각 학과장과 상시적인 논의를 거쳐 학교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공과대 재반요소를 고려할때 학교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안이 미흡해 공과대학생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교무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22일 확정발표한 92학년도 대학입학정원조정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84년 수도권정비계획과 그 시행령에 따라 입학정원동결조

불상중수 올해안 발주 차질 동결위험 이유...청동본색 합이

전통을 거둬온 오던 정상중수 건이 청동 본색으로 증수한다 는 원칙이 세워졌으나 동결위험등의 이유로 올해안 발주 차질은 합이로 보며 합이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학생회측이 예산상의 문제점과 기존설상의 예산정 보준의 취지에 청동본색으로의 증수를 증수할 뜻을 학교측에 서한으로 전달함에 따라 오는 8월 제2차 회의가 열린다. 이번의 정상중수건은 지어진 것은 지난 4월초부터 정상급도급의 학생회측 주장에 무성의했던 학교측의 태도도 문제지만 그동안 학교측과의 회의에서 학생들의 주장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고 있다. 한편 관계자의 한 관계자는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 공사방법과 발주시기를 논의하더라도 동결위험때문에 올해안에



미군살 수입반대를 위한 '살수입 막아내' 캠페인. 사진은 지난 28일 본교 운동장에서 열린 '미군살 수입반대'를 위한 대국민 공동실천 결의대회 모습. (관련기사 5면)

총학생회장에 2개조 입후보 1번 조한곤·홍정의조 2번 이광집·윤오순조

서울·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부회장선거가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서울캠퍼스 제24대 총학생회장·부회장선거에 기호1번 조한곤(국학4)·홍정의(국학4) 조 기호2번 이광집(전기3)·윤오순(정외4)조가 지난 29일 오후 5시 중선위에 각각 등록 했으며 제8대 총학생회장은 입후보자가 없었다. 이날 후보자등록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선거대책본부사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물부착, 유인물배포, 선거본부운영등 선거시행계획 검토와 사전활동등이 있었다. 한편 총학생회 세부일정을 보면 △11월5일=1차유세(도서관) △11월7일=2차유세(도서관) △11월8일=방송유세(D.U.B.S 12시방송) △11월11일=공개질문회(도서관) △11월13일=3차유세(반해광장) △11월14-15일=투표 △11월17일=당선화정공고 등으로 진행된다. 개표는 오는 11월16일 0시부터 중선위장 임석하에 다양한

수 찬성) △세계초지정화-1차 경교문 5메트 선전물걸기, 2차 경교문 5메트 유세시간 10분단축(1차예), 3차 자객박탈 신신분화-학생중, 주민등록중, 운전면허증등 3종만 가능 △교내에서 셀프사용할 볼펜볼가 투표표인 명부의 투표참가수와 투표용지 숫자가 다를 경우 초과 30개까지 인정 △선거제적보다 후보기간 합의사항을 우선으로 하며 양후보기간 합의가 없을 시 중선위에서 결정한다 는 것 등이다.

올바른 학생회선거를 위한 제언②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합시다

8853136 1111
마음을 해서 만들어 선거자금을 쓰는 후보는 선거자금을 공개 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선거는 금권 선거가 아니라 깨끗한 선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보수

결과로 윤희의 꿈을 받고자 하겠는가.
마음에는 두 가지 양상을 띄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 하나가 緣滅法에 의한 해탈상으로서 명(Vidyā)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貧愛緣滅法의 파정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이다.
알고 보면 삼라만상이 衆無靈緣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연히 터득 하고 보면 굴절된 모습으로 상대를 보려는 함이 있는 이에게는 필연적인 통과의례 마냥 전환 작업의 과정이 불요불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존재의 의존을 재인식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거듭 날 때 만이 중생계로부터 탈락하는 길인 것이다. 그렇기 되면 이 캠퍼스에 뛰구는 낙월에서 존재의 생기를 음미 해 보는 여자가 생기지 않았는가.
崔玄覺

존재의 의존성

여기서 인간에게 탐욕심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탐욕이라는 큰 주제 앞에 인간이 순순히 따르며 윤회의 길을 치달게 되는 것이고, 탐욕을 調伏 하면 해탈에 곧 이르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누구인들 탐욕이라는 끈의 씨앗을 뿌려 그

미등록 제적생 59명 당사자 사전통보 불이익 줄여야

91학년도 2학기 미등록제적생이 지난 1학기때의 41명보다 크게 증가한 59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1백명에 이르는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처리 되고 있다.
학과의 한 관계자는 "예년과 비슷하게 1백명에 가까운 미등록제적생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는것이 주된 사유이고, 미등록제적 당사자가 학과에서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않아 제적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입학기간내에 등록금을 납입

수습기자 모집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우리시대를 이끌어갈 의식있는 남녀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① 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00명
- ② 응시자격: 1학년 남녀재학생
- ③ 모집분야: 일반 킷·사건기자
- ④ 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1통(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명함판사진 1매
- ⑤ 원서접수: 서울·경주 11월7일 오후6시까지
- ⑥ 모집방법: 간단한 상식, 작문, 면접을 통해
- ⑦ 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 ⑧ 수습기자 지원자는 오는 11월7일 오후6시까지 각각 서울·경주 신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문사

Newsweek 한국판

수요일엔 언제나 세계가 달려옵니다

Newsweek
全世界 2,500萬讀者가 읽는다.
全世界 2,500萬讀者가 뉴스워크를 읽는다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Newsweek
다양한 情報를 提供한다.
뉴스워크는 政治·經濟에서 藝術·映畫까지 다양한 情報를 提供합니다.

Newsweek
眞實만을 전달하려는 강한 信念.
1933년 創刊 이래 뉴스워크는 세계 각지에서 강한 信賴를 받고 있습니다.

Newsweek
새로운 뉴스워크 誕生
1991년 10월30日, 뉴스워크 한국판 誕生. 한국어로 꾸며진 완벽한 뉴스워크 出現

Newsweek
韓國 最初의 國際時事 情報誌
세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韓國 最初의 國際時事 情報誌. 세계속의 韓國을 理解하는 지름길입니다.

Newsweek
진 世界와 同時에 最新 뉴스 들...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같은 記事를 같은 時間에 話題에 올립니다.

Newsweek
 화려한 칼라 插報로 세계를 읽는다.
명쾌한 문장, 풍부한 칼라 사진 읽기 쉬운 편집. 뉴스워크 스타일의 경수입니다.

뉴스워크 한국판 마침내 10월30일 창간

10월 30일 전국서점에서 만나주십시오
매주 수요일 발매
정가 2,000원

한국판 創刊의 蘇聯·東歐의 大變革과 緊迫 때 심각한 그대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들은 즉각, 그리고 직접 우리 生活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의 실상입니다. 이제 한국인은 世界의 情報를 언제나 함께 나누고 국제적 감각과 인식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國際情報를 제공하는 한국 최초의 국제적 時事誌 이것이 뉴스워크 한국판 創刊의 目的입니다.

뉴스워크 한국판의 特色
1 人間이 관련된 모든 分野에 초점을 맞춘 뉴스매거진. 政治·經濟에서 科學·文化에 이르기까지 신선하고 다채로운 情報
2 세계적인 情報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시사. 이제 自國 中心의 눈으로는 세계를 볼 수 없다. 「세계로 열린 窓」 뉴스워크로 알게 되는 「세계속의 한국」
3 眞實만을 전달하려는 信念에서 우리나라는 客觀性, 信賴性, 中立性, 그리고 탄탄한 권위.
4 간결명료한 번역, 읽기 쉽고 보기 좋은 풍부한 사진, 편집의 친근감.

이러비트생 모집 건강하고 성실한아르비트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02)751-5849/5854

기획시리즈 여섯번째

UN무대에서의 한반도 문제

지난 9월 17일 분단 40여년만에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하였다. 여기서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굳이 '각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연유한 것이다. 첫째, 누가 보아도 남북한 유엔가입은 단일의식에 의한 동시가입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남북한 유엔가입은 '따로 따로'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는 남북한이 150, 151번째 유엔회원가입국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확인되

리고 흡수통합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반대의 근거가 주어진다. 한편 남한의 유엔단독 가입에 대한 북한의 반대 논리는 "두 개의 조선 고착화와 분단의 국제적 승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의 논리에 대해 그동안 남한 정부는 동·서독과 남·북베트남 유엔에 각각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남한 유엔 단독가입이 오히려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대체론자가 부각되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들에 대해 유엔가입은 단지 남북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라고 인식,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곧바로 관련권제로 연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평화협정문제와 관련, 유엔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 남북한의 당사자로서 대화해야 할 성격의 문제라고 주장, 유엔가입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국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유엔가입에 따른 구체적 과제들에 대해서 "당사자간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이루어진 일주일 후인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평화

글심는 차례

1. 국제정세 개괄
2. 변화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3.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대응
4. 북한의 현실노선
5. 남한의 흡수통합노력과 미국
6.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7.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전체조건
8. 총괄

거부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누구를 협정의 당사자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북한 간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교전당사자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당연히

흡수통합과 핵사찰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뢰구축과 핵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핵재식전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최근 들어 한반도 핵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지난 9월 2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세계가 뛰고 있다

—우리로 다시 뛰자 (조선일보사)



이제 성급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다. ('신'식민지인의 지혜로운 책 읽기'라는 배낭의 충고도 없더라도 어려운 처지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해할 때 자기의 현재가 분명해지고 그러한 자기파악이 충실해야만 흐트러진 발걸음을 가다듬어 한발 더 앞으로 내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획은 세계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대립을 풀고 경제 경쟁체제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기획 1 일본편에서 일본을 21세기 세계 경제체제의 선두주자로 꼽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한 일본의 전자산업체들이 '가미가세'식 돌진으로 끝까지 다국적 기업을 합병한 사례를 높이 치켜세웠다. 그러나 불가치하고 슬백을 부추기는 일본문화의 수입으로 우리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는 측면과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과학기술이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언급은 없다.

미국편은 10월 9일 교만에 빠졌던 미국이 CIA와 상무부를 앞세워 대일경제전을 선포함과 동시에 기술·경제적 패스 아메리카 만들기 노력하고 있음을 다소 격양된

가변하는 세계의 한반도개념

'핵'논의 뒷전에서 남북 군비경쟁 가속화

고 있다. 그런 만큼, 흔히 신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틀린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단일의식에 의한 동시가입이 가지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에 다름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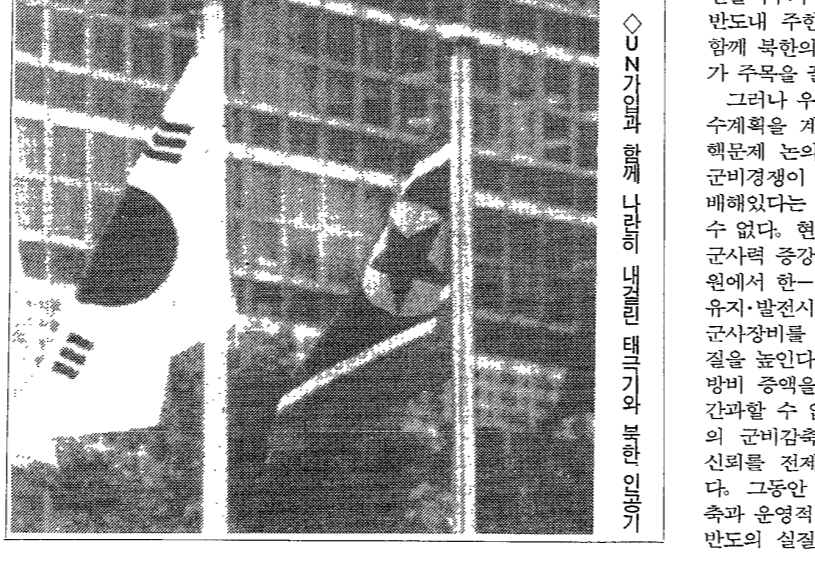
물론, 더 중요하게는 유엔가입 문제를 남북한 정부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가입을 둘러싼 남북한 대립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었으나 "왜 남한 정부는 북한의 반대를 도입한 채 유엔 단독 가입을 고집하였는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이는 "왜 남한 정부는 유엔에 단독 가입을 단호히 반대하였는지"라는 질문과 대립되는 대안으로서 남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몇가지 과제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다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 단독가입이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만의 유엔 단독가입을 반대하였는지"라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이다. 이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문제에 당사자간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당사자간 해결되지 않고 '유엔'이라는 국제적 장(場)으로 옮겨질 경우, 이는 곧 전후 한반도문제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외세의 입장만을 강



UN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당연히 흡수통합과 핵사찰 문제를 언급하면서, 신뢰구축과 핵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핵재식전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평화협정 등 구체적 과제들은 '당사자간 해결' 주장 남한의 신국방 전략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 UN 동시가입은 국제법상 주체 인정... 국가보안법폐지 대두

화시켜 분단 고착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지난 9월 17일을 계기로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하였고, 이로 인해 그간 치열하게 대립해왔던 '외교적 대립'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우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한다는 것은, 곧 유엔으로부터 국제법상의 주체임을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개정문제는 불가피하게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 문제도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서독이 1972년 '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는 기본적 약속을 유엔에 가입했듯이 남북한간에도 불가침조약 및 현행 북한과 유엔간에 체결돼 있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요건의

평화협정 등 구체적 과제들은 '당사자간 해결' 주장 남한의 신국방 전략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 UN 동시가입은 국제법상 주체 인정... 국가보안법폐지 대두

한계 대체상태의 양쪽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남한의 주장으로 대립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형식이야 어떻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할 때만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분단상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교전과 휴전협정의 공시적 주체이며 사실상 현재까지도 한반도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또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중국을 포함한 교전의 당사자 또는 한반도문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평화협정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를 계속적으로 지연시켜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도 남한의 분단급 증대와 철수무기의 판매를 피하고 증대를 감당할 때, 한반도 평화정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2천년이 지나서도 주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나 군사력의 양적 감축을 통한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신국방전략'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조 정착은, 주한 미군의 전술핵 철수에 이어 남북간의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실현하려는 남북간의 확실한 의지가 실행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 서인석 (한국사회 연구소 연구원)

그래, 우리도 다시 뛰자

늘 알아서 기는 체제기생 포출

방선진국과 동구권, 중국, 대만, 태국 등의 새로운 움직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의 혼란기를 보아오면서, 미국의 경제·정치·사회·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조선일보 특유의 선진적 시각과 색깔로 조목조목 밀어붙여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늘 알아서 기는 체제기생 포출'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깊다. 이 기획은 여기서 '조선일보 특유의 선진적 시각과 색깔'에 주목해야 한다. 마치 조선일보가 '사회평론(91. 9)'에서 밝혀 놓은 것처럼 '늘 알아서 기는 체제기생 포출'은 생동력을 가지고 증산증산화를 한 것 부류라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극우 반동의 신문, 공화당 말장난만 악의적인 반민족논리를, 심대한 반동일 연사든 일단 잡았다 하면 어떻게든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자 하는 기사·편집의 노후를 가진 신문이라고 일축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취직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든, 프로그래머를 보기 위해서든 조선일보를 뒤적거리다 가끔 이 기획이 그리듯한 점이 있다고 느껴본 사람이고 보면, 과연 이 기획의 어떤 점이 혹하게 했는가 하는 반쯤 짐작이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기획에는 모두 25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를 모두가 한결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나치게 도식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전통적인 인맥관계를 고려할 때, 평가자들의 견해가 이 기획의 '로얄 패밀리'들의 가혹한 통제를 받고 이 기획의 주제로 결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기획의 시각과 색깔은 어떤 것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부추기고 또 배설하는가? 우리는

1992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전 기 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가. 석사학위과정: ①영어 ②전공 ③수술고사 나. 박사학위과정: ①영어 ②전공(공통, 세부 전공) ③제2외국어 ④수술고사

다. 박사학위과정 특별전형: 4년제 대학 조교수급(전문대 부교수, 공인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자)에 상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음.

2. 모집인원: 석사과정 000명 박사과정 00명

3. 시험과목

가. 석사학위과정: ①영어 ②전공 ③수술고사 나. 박사학위과정: ①영어 ②전공(공통, 세부 전공) ③제2외국어 ④수술고사

4.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91년 11. 6(수)~11. 13(수) 17:00까지 나. 원서접수기간: '91년 11. 11(화)~11. 13(수)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과 라. 시험일시 및 장소: '91. 11. 22(금) 10:00 동국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교학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260-3093, 3094

동국대학교 대학원

'91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1학년(000명)
- 지원자격: 4년제대학 1학년('69. 1. 1~'75. 1. 1출생자)
- 지원서류: 교부 및 접수 - 기 간: '91. 10. 7~11. 6(학군단 내부) -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와)
· 지원서(사전접부) 및 서약서 2지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2지부
·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2지부	· 사진(4x5cm) 5매

-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신체검사
- 합격자 발표: '92. 1. 23
- 특 전
 -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 희망 및 전공 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육군본부

재학생 징병검사 유의사항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민개병의 정신에 입각한 병역의무의 이행과 공평성을 제고시키고자, 1993. 1. 1부터 방위병 소집제도를 폐지하고, 아울러 '92년도 징병검사시 부터는 현역과 면제자로만 한정하고 보충역 처분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현재 병역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사유로 징병검사가 연기중에 있으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92년부터 병역처분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학생의 병역을 '91년내에 확정시키게됨으로 장래에 비치된 각 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용을 원하시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임용조치하게 되었으며, 또한 학업관계상 졸업시까지 연기를 원하시면 계속하여 임용연기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의사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 지방병무청 선병과(☎754-048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 생 처 장

제6회 동대문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나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6회 東大文學賞' 작품을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 제6회부터는 내일을 기하기 위해 응모자격을 본교생으로 제한하여 상금을 인상하는 한편, 신년호에 입상작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 모집분야
 - 詩 부문: 3천 내외
 - 小說 부문: 60매 정도(2매차원고지 기준)
 - 評論 부문: 60매 정도()
- ◇ 응모요령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1년 11월 18일~11월 22일까지
 - 시 상: 시 부...본상15만원, 장려상10만원
 - 소설 부...본상25만원, 장려상20만원
 - 평론 부...본상25만원, 장려상20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1992년 1월 1일자 東大新聞紙上
- 작품제출처: 본사 총무부
- ※세출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동대신문사

재학생 징병검사 안내

'92년도 부터 방위소집제도 폐지등 병역제도 변경에 따라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자와 형평을 도모하고 '92년 이후 징병검사를 받을자와의 병역처분 기준 상이로 예상되는 대국민 오해 및 불신요인 방지를 위해 현재까지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학사유로 징병검사 연기중에 있는 '71년이전 출생한 사람 전원을 본적지 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91. 11. 11~11. 30일까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용을 원하면 임명 조치하고, 졸업시까지 임명연기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선병과(☎ 754-0480)로 문의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장

침체에서 또다시 민주노조건설로

하반기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

10월9일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위한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라는 전노협과 업종을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이 결성되면서 91년 하반기 노동운동은 그 대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 6월의 공세적인 대졸생 추방과 두차례에 걸친 총파업(5.9, 5.18)으로 총자본과 국면전환을 모색했던 노동운동 전열은 광역선거의 패배와 그 이후 지속되는 UN정국하에서 다소 심리적 침체를 겪어왔으나, 한편으로는 조직강화를 위한 내부적 정비와 정부의 노동법 개악기도를 막는 공세에 투쟁으로 대응하면서 전국적 투쟁전선을 다시 형성해내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91년 하반기의 전국적 투쟁전선은 정부의 ILO가입 및 조약비준과 국제자유노동(IFTU)의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 고양이라는 상황을 의식 고려로 하면서, 전민적 전열의 통일적 투쟁대응으로서의 상설연합 건설과 92-93년 민주중추도 민주대연합에 의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술 방략하에 총투쟁에 보다 주동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이러한 정세적 계기를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으로 적극 도모하기 위한 정세조건으로 활용한다는 전망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노동전열 내부의 '조직강화'와 민주노조 증대

결 투쟁의 발전, '상설연합 건설에 의한 전민적 투쟁전선의 강화와 권력 재편기의 집중투쟁을 통해 노동자 대투쟁의 전야를 적극 조성하며 이를 통해 민주노조건설의 조직적 발전(산별노조의 건설)을 꾀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투쟁에 의한 전국적 투쟁전선의 구축이라는 사업의 집중점은 조합원 요구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노동운동단일암 및 정권 확립과 노동법개정 투쟁의 당위성으로 결합해 내는 선전을 보다 강화하며, ILO의 87호 조항과 현 노동법의 3조 5항의 문제를 결합해 노동조합의 '단결의 자유'를 쟁취하여 민주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투쟁의 전방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조직적 주체가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이며, 이는 곧 민주노조증대결 투쟁의 주체인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한 투쟁전선의 최고지침이 11월10일 '전대일 열사 정신계승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이다.



전노협등 노동운동 전열은 오는 10일 열릴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ILO가입 앞두고 노동운동에 관심고조 단결개약 공세 맞선 공동투쟁 절실

이렇게 볼때 하반기 노동운동에서 이면대회가 갖고있는 의미는 무엇보다 크다.

전노협 산하 사업장은 이미 55.9%가 주 44시간을 확보했으며, 소속노조의 93.3%가 노동시간 단축에 8시간 기본급을 받도록 단결협약(이하 단협)을 맺고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미조직 사업장이나 미가입사업장의 경우는 주50시간이 넘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높은 산재 발생률(89년 134,127명)의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

정부는 91년 10월 1일부터 300

명 미만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도 주당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른바 주44시간 노동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영세사업장의 경우 '임금삭감 없는 주 44

만들기 때문에 3)충족없는 요구의 나열 4)업종별, 지역별 공동투쟁의 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하반기 단결 갱신투쟁은 자본가들의 '단결개약공세'를 타파하고 단결노조의 조직력 강화와 노동조합원 등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투쟁을 보다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결협약은 노동법 형성의 모체로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집중투쟁인 노동법개정투쟁과 내용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과 주 44시간 확보와 임금보존을 위한 투쟁은 노동법개정투쟁을 통한 민주노조 증대결투쟁의 기반인 미조직사업장의 지원투쟁이라는 점에서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 노동운동의 중요한 3대 투쟁이다.

92-93년 권력 재편기의 정세유동상을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광범위한 노동자 대투쟁의 전야를 조성해 내겠다는 투쟁의 전방을 민주노조전열의 조직발전 전망을 전노협 대중과 더불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대중적 투쟁이 강화된 민주적·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의 구체적 경로와 시기의 문제는 아직 분명히 정색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민주노조전열의 조직적 발전은 상설연합의 건설강화라는 전민적투쟁의 조직과 투쟁의 발전이라는 연장선에서 노동운동 전열 내부의 총투쟁투쟁의 조직과 투쟁의 발전에 도모하는 가운데 노동법 철폐와 총자본과의 투쟁강화라는 정세적 조건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직적 발전을 위해 압축모색하며 민중전열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에 앞장서고자 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70년대 이래, 아니 그 이전부터 학생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으며 자본과 권력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노동운동투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간의 관철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노조 전열의 노력은 민주노조 증대결 투쟁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하반기엔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항의 투쟁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단결협약 갱신투쟁의 경우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1)단결투쟁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없는 가운데 단결투쟁이 일상화됨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며 2)요구한 대투쟁의 요구에 기초해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안'이나 다른노조의 것을 보면서 간부위주로

◇개정된 병역법의 의미

지난 9월 5일 이종구 국방장관은 오는 93년부터 병역제도를 개정하여 방위병 복부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의 복부기간을 2-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국방장관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국내의 정세변화로 인한 군축 및 국방예산감축을,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 완화요구,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총체전력의 정예화, 방위병 복부제로 인한 병무보조리 해결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 병역법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과도한 군비 부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점에서 볼 때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개정 병역법은 공식적으로



은 오히려 5만명 가량 늘어나게 되며 방위병 폐지로 줄어드는 예산이 평화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무기도입 등 군전력강화에 쏟아부어지게 되어 전체적인 군 전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급변 병역법 개정은 평화와 군축에 대한 국민의

개정 병역법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 병역법에 의하면 육군은 4개월, 해군은 2개월, 공군은 5개월이 줄어들어 각기 26개월, 30개월, 30개월씩의 복부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는 군복부기간을 20개월 이하로 단축하고 있는 나토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은 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기능 우려

방위병 폐지에사, 첨단 군수물자 도입에 사용

밝혀진 취지와는 달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오히려 역기능을 할 우려가 높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세계는 평화와 군축의 새로운 흐름 속에 있으며 한반도에도 군축요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남북을 가릴것 없이 대단히 유익한 것이며 그것은 과감한 군축조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개정 병역법은 상반군 수를 줄인다고 표현적으로 감축 효과를 내는듯 하지만 실제로는 정교군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군을 더 정예화하여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개정 병역법이 시행되면 현재현역 65만5천, 방위병 17만4천, 약 83만 규모(전투경찰 포함시 97만)의 상비군이 70만 수준으로 줄어드나, 현역정교군

요구를 교묘히 회피하고 그에 순응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병역법은 우리 국민의 과도한 군비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도 별 효과가 없다. 우선 군비부담면에서 볼 때 앞서 얘기하였듯이 방위병폐지로 인한 예산절감이 전력증강사업에 다시 투입됨으로써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GNP와 맞먹는 97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어있다.

병역부담의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2천년대 초까지 전력증강사업에만 85

조 2년이하의 복부기간을 갖고 있는 대부분(74%)의 국가들에 비해서도 현역이 무거운 병역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신체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현역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앞으로는 무리한 현역생활을 견뎌야 하는 만큼 그들은 남보다 더 큰 병역부담을 지지않으면 안되게 된다.

아울러 병역개정에선 방위병이 군 대인사교의 62%를 차지하여 통계에 문제가 많은 명분도 있으나 역시 대인명첩이 많고 국내 민주화운동에 인력을 담당해온데 대한 경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유식
(한겨레 사회 연구소 연구원)

◇재단이사장 선출을 앞두고

오는 11월달에 열릴 예정인 재단이사장 선출에 동국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60년대 이후 수준높은 동국학원의 위상을 많이 되찾았던 동국재단이 이번 이사장 선출을 통해 재단법인 혁신된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바라는 전 동국인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다.

이에 사립학교법에 적용받는 서울에서 타 사립대학교의 사례를 살

운영하는 경비는 학생 등록금 수입만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자체수입에서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예산 및 집행에 대하여 예산은 학교예산과 법인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학교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법인의 예산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집행하도록 하여 학교와 이사회를 분리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각 학교이사, 전직 교육계 종사자 부실 이사회의 아성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정 이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은 임의로 예산을 전용·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사회의 정비를 살펴보면 '이사회'에 관한 연구(이현숙·이서영)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정 이전에는 이사회의 구성이 임의적이었다. 학교법인의 헌장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은 임의적이었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은 임의적이었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은 임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제정 이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은 임의로 예산을 전용·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사회의 정비를 살펴보면 '이사회'에 관한 연구(이현숙·이서영)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정 이전에는 이사회의 구성이 임의적이었고, 학교법인의 헌장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은 임의적이었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은 임의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는 먼저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한 이사장 선출에 관한 동국인의 그 어떠한 희망이나 노력도 되원전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사회부)

동약로

"후보자 두명 나왔는데 누군 선 택하는것이 좋을까?"
"바람직한 방법은 역시 서로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것이겠지."
"두 후보자 공약이 별 차이 없는것 같은데?"
지난23일 이과대 선거홍보관에서 두 학생이 후보 각각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나누던 대화이다.
각 단과대 학생회장 투표일이 이만달달인로 다가오면서 당연히 학생들의 관심이 전과로 쏠리기 시작했다.
선거에 임후보한 후보들이 아직 일찍부터 선전전을 하고 여러 후보들의 각종 공약안과 인사발로 가득한 대자보들이 등장 곳곳에 부착되어 있어 선거 절정기임을 잘 말해준다.
"복지 위원회와 복지기구 차이 점이 뭔데?"하며 실질적인 내용

차이 없이 형식과 표현만 다른 일 부공약들에 대한 학생이 의아해 했다.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회 건설', '복지기구 설치' 등을 주장하는 일 부 공약내용엔 학생회 참여방로, 실질적인 복지사항에 대한 언급이

알찬 공약

이런 공약이 학생에 대한 약속으로 다음 학생회가 신뢰 받는다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라고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복지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한 후보자의 공약처럼 진정 학생회의 출발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한 공약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할 때다. (송태경 기자)

"작년선거의 공약들을 보는데 말이요, 우리들이 평소 생각하던 필요로 하는 복지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제의와 계획은 눈에 안 띄고 예년과 변함없는 제의나 주장만을 내세워 선거를 하니의 연례행사 정도라면 만들어 버리는것 같습니다."라며 농구하던 한 학생은 오늘 있었던 선거유세도중 자리를 떠났던 이유를 토로했다.
선거가 그 평가의 대안이란 말이 있었지만 현재 공약의 현실성은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더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공약이 학생에 대한 약속으로 다음 학생회가 신뢰 받는다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라고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의 복지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한 후보자의 공약처럼 진정 학생회의 출발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한 공약이 시작되는 것을 생각할 때다. (송태경 기자)

군·행정병 모집

1. 고졸이상 17-26세
2. 평정주목기 900 부여
3. 1월 - 12개월에 걸쳐 단독입영
4. 6주 훈련후 상근부대 배치
*유시학원 주최

735-2323
735-9718

김유니타자 학원

女事務

秘 塔 經 書 理 0A

워드프로세스
영상·여교·초·대졸
다가교육 책임취임
(재학생 수강료할인)

732-3375 직통

2천 수백년전 이데로 떠나는 역사조사여행!

철학과 소크라테스
고처가 소크라테스
호사카 다카히로 저음(세재) 옮김

세기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아내 크시노테라는 궁극으로 당시의 이데로 떠나는 역사조사여행이다.

● 신권 224원 ● 권 4,000원

90년대의 아담과 이브

우에노 지즈코 저음
이세호·야노 유리코 옮김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NHK특집 프로그램을 활자화!!

● 신권 264원 ● 권 4,500원

일나가 정현범 역으로 번역해가는 정동사회화인 아담과 이브의 열린 별판이다?

산양의 화가(테레코프) 1969년 이후 여성 해방 운동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던 서방세계의 사례를 일본 NHK방송에서 생생하게 취재 방영한 것을 활자화한 것으로, 여성해방운동가이자 사회학자인 저자 우에노 지즈코 교수는 뛰어난 필력과 특출한 시각으로 이 시대의 남자가 처한 상황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있다.

-일대 30여명 교수 추천의 글 가운데 하나-
● 신권 224원 ● 권 4,500원
● 신권 224원 ● 권 4,500원

(주)시사영어사

현대 시사 어학원

TOEIC 강좌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TOEFLC, TOEIC, GRE, ARK, TIME, VTC 22,000, Word Power

● 영어·일본어·중국어
● 영어·일본어·중국어
● 영어·일본어·중국어
● 영어·일본어·중국어

개강 11월 1일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BE WINNERS
외국어교육의 센터

英·日·中·露·獨·佛語

고려외국어학원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BE WINNERS
외국어교육의 센터

ELS 유학과 TOEFL준비는...

ELS 집중영어코스

개강 11월 11일 / 등록 10월 31일부터

1일 6시간씩 단기 집중교육

학생·직장인·주부를 위한 1일 3시간·2시간 코스

● ELS란?
ELS는 미국 교육성이 교육의 질을 인정하는 "Accredited School"로서, 30년 동안 전세계 50만명의 학생에게 영어만을 가르치던 명문 영어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 ELS 교수진
ELS교수진은 TESL(제2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 전문가로, 선린 Native Speaker입니다.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 수료증 발급
본교가 발급하는 수료증은 미국 21개 ELS Language Centers에서 통용되며 미국 약 400개 대학에서 TOEFL대신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사색반개설

● ELS종로 TEL: 278-2902/3, 0509
● ELS강남 TEL: 554-9191/4

※ 토·일요일에도 전화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시사영어사 직영 ELS Seoul

◇우수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장학확대 - 다양한 홍보 작전 절실

불교계 - 동문등과 협조체제 확대도

92학년도 대학입시원서접수를 앞두고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홍보등의 작업이 대학의 수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교당구의 홍보부와 교무과를 주축으로한 교수 직원의 홍보팀이 구성돼 서울 시내 주요 고등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펴고 있지만 서울 시내에 주유대학과 비교해 불행히도 홍보전력이 미약하다.

지금까지 우리대학의 대외적인 홍보활동은 보면 지난 87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대학소식과 화보, 전국 주요교당방문, 동문소초청방문을 통한 필착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 제작, TV광고까지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 추진중이다.

이런에 제작된 대학소식의 경우 중3만부가 발행돼 전국 각 1천여 고등학교에 발송되어 어느정도 간접적인 홍보에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도권 주요대학의 수준과 비교해 분배율도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같은 증차대행 시점에서 우리대학의 보다 많은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다.

첫째, 우수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별장학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하여 면학분위 조성에도 힘써 우수인력을 많이 배출해 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증차대행 시점에서 우리대학의 보다 많은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다.

첫째, 우수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별장학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하여 면학분위 조성에도 힘써 우수인력을 많이 배출해 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증차대행 시점에서 우리대학의 보다 많은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다.

이와같은 증차대행 시점에서 우리대학의 보다 많은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다.

첫째, 우수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별장학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하여 면학분위 조성에도 힘써 우수인력을 많이 배출해 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증차대행 시점에서 우리대학의 보다 많은 우수신입생유치를 위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다.

경주 단대 선거 막바지

내일 동연 정·부회장 선출도 함께

경주캠퍼스 6개단과대중 4개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제2차 유세가 지난29일 오후1시부터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축하에서 열린 제6대 인문과학대 학생회 정·부회장유세에서 기호1번 박승익(고미사)·오윤중(한문3)은 “민중연합을 토대로 민중정당을 강화하고 민중의 독자적 정치체제화를 이룩하자”고 밝혔다.

이와 기호2번 박승익(국사3)·이상도(영문3)는 “단순히 민중당 강화부재 보다는 민중주도의 민주대연합이라는 불속에서 민주연합정부를 수립부재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열린 제4대 상경대학생회 유세에서 기호1번 김문성(경영3)·이영균(무역3)은 “수업개방 저자투쟁, 남북한 통일, 핵사찰및 비핵, 구속 부형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열악한 인력태양에 힘입어 지원학과와 보다 폭넓은 재정지원 등을 통한 장기적인 홍보개발을 세워야 한다. 둘째, 85학년의 연구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사학으로서의 독특한 하중의 맥을 이어가는 동시에 중등교육을 비롯한 조계종단의 각 지방사찰등 불교계차원까지 홍보전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우수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입생 및 재학생을 위한 특별장학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하여 면학분위 조성에도 힘써 우수인력을 많이 배출해 내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학생회 강화에 도움되는 선거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득연군을 만나



92년 학생회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선 제24대 총학생회 선거준비와 이달말부터 일제히 치러지는 11개 단과대 선거관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득연(국문4)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선거과정상의 문제점과 이후의 세부일정을 들어본다.

이어서의 정당한 대결이 되기 보다는 사소한 지엽적인 부분(대자보 내용, 유세시 한 말 등)이 있어서 후보자들 간의 대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은 모든 단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것은 중선위 자체적인 역할도 부족하다. 실제로 중선위의 경우 어느정도 실무부서에 집중하다보니 여러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에 있어서 주요정책이나 공약내용에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회칙이 명시돼 있다. 단과대학총학생회장은 6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당해학기 재학생인 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각단위의 어려운 실정이나 회칙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지금 현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회 선거는 지금까지의 학생회 사업을 올곧게 평가해내는 자리이며 오류를 바로한 것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각 단과위원회 모두는 92, 93년 대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생회 역할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생회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회 선거는 지금까지의 학생회 사업을 올곧게 평가해내는 자리이며 오류를 바로한 것에 대한 대안책을 내놓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각 단과위원회 모두는 92, 93년 대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생회 역할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단대 선거 내일부터 투표

학생들 무관심속 대부분 유세 마쳐

서울캠퍼스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내일(31일)부터 투표에 들어간다.

제24대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선거 1차 유세가 지난29일 오후1시 문과대학생회 1155호에서 참가한 가운데 평민당 앞에서 열렸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학과소식

경영학과 ‘제3회 가람제’ 경영학과학생회는 과학생의 화합의 장이 될 ‘제3회 가람제’를 내달 1·2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날 행사일정을 보면 1일은 체육대회와 퀴즈 ‘등서남북’이 만해광장에서 열리고, 2일에는 마당극 ‘명준의 아들’과 장구자랑 등 ‘경영인의 밤’이 오후 4시부터 다문화관에서 치러진다.

전자계산학과 ‘셀름제’ ‘무르모전시회’ 전자계산학과 학생회는 개성 20주년을 맞아 ‘셀름제’와 ‘무르모전시회’를 오는(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개최한다.

‘셀름제’ 행사는 오늘(30일) 오후1시 만해광장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내일(31일)은 교수, 강의를 비롯 문제제를 다룬 토론회가 진행된다.

미술학과 막내전 미술학과 1학년생들의 ‘막내전’이 지난 28일 오후5시부터 동구관 5층로비에서 내달 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학기가 시작된 후부터 최근까지의 동양화, 서양화, 불화, 조소등 40여점이 출품된다.

한편 오는 11월 4일부터 ‘동2전’이 열린다.

교육학과 학술제 교육학과학생회가 오는 11월 1, 2일 양일간 학림관을 중심으로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불교 학술연구 발표회

전국불교관련 연구자 참석

한국불교학회(회장=이재창·불교학) 주최 ‘제17회 전국불교학술연구발표회’가 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동구관(L101)에서 열린다.

이날 학술발표회에는 전국 각대학 불교관련 연구교수, 불교학 관계자 24명이 주제발표를 하게 되는데 불교의 이념(불교학), 오형근(불교학), 연기영(법학)교수를 비롯 원광대 정순일(원불교학), 숙대 정영삼(한국사학), 충남대 이평래

(철학)교수등 강사 20여명이 참가한다.

또한 교수, 강사외에도 세계 불교도의 한국본부회장 박동기(본교 총무부처장)씨와 이영(불교방송국 차장)씨가 나와 각각 ‘효행과 선승행’ ‘불교학 자료의 DB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발표회가 끝난 뒤에는 ‘제 17회 정기평의회’를 함께 개최하게 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자연사단)·기호2번 신현일(달성)·김수희(서라벌사회)가 각각 유세하는 가운데 내일(31일) 오후5시 시청각실(도서관4층)에서 실시된다.

이와 기호2번 박영성(경영3)·백우진(무역3)은 “학원민주화에 역행하는 학원인정과 대책을 분쇄하고 학원자주완수, 교과과정위원회의 강화, 컴퓨터 실 증설등으로 면학분위 조성”을 밝혔다.

제4대 자연과학대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수교3)·이창훈(조경3)은 유세는 오후5시 녹야원에서 있었다. 제5

대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을 위한 유세는 오후3시 진흥관 앞 통일평장에서 기호2번 고대우(행정3)·김오(법학3)·기호3번 구자근(법사3)·노성래(행정3)·기호1번 이현학(법학3)·이호진(행정3)의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단과대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는 내일(31일) 각 단과대별로 실시되며,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투표는 기호1번 권성훈(RCY)·장종현(대

